

109 학년 1 학기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6)」  
주제: 동아시아 시점으로 본 일본신화 및 일왕

제 16 회 유라시아재단 국제 강좌는 대만 중앙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월홍(藍弘岳)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시점으로 본 일본신화 및 일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남 교수는 역사와 근대사상을 전공하였다. 이번 강좌는 역사에 대해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주제를 해석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중국문화와의 관련성, 일본신화와 일왕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강연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1. 일본,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한자 및 문화의 전파

먼저 일본의 문인화(文人畫), 요사 부촌(與謝蕪村)이 그린 ‘난정곡수도병풍(蘭亭曲水圖屏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작품 중의 난정곡수(蘭亭曲水)를 살펴보면 실제로 문징명(文徵明) 화가의 난정집서(蘭亭集序), 유상곡수(曲水流觴)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 널리 알려진 히나마쓰리(雛祭り)는 일본 전통에서 나가시비나(流し雛)라는 행사에 비롯된 것이다. 이 행사도 고대 중국에서 매년 3 월마다 열린 것으로 사람들이 강가에서 목욕을 통해 불운을 없애 버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언급하고 질문하였다.

(1) 일본의 문화는 일본답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국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문화가 정말 닿지 못한 영역이 없을까?

(2) 중국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의는 언어, 지역,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3) 동아시아, 아시아란 무엇인가? 이는 실제로 한자(漢字), 한문(漢文)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와 아시아라는 개념은 약 19 세기에 형성되었는데 동아시아에 대한 정의는 한자(漢字), 한문(漢文)의 매개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본의 새로운 연호 ‘레이와(令和)’를 예를 들면, 연호라는 것도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레이와’라는 단어는 일본 최초의 시가집 <만엽집(萬葉集)>에서 인용한 것으로 중국 <시경(詩經)>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민족주의에 투영되게 하였다. 그러나

<만엽집(萬葉集)>중의 시가도 사실은 중국 경서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

## 2. 고대 일본 사람들의 ‘신’

남 교수는 에도 시대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말을 인용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신(神)은 비범적인 덕목이 있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어 훈독(訓讀)에서 신의 글자는 한자(漢字)로 쓴다. 확실하게 고대 중국의 ‘귀’, ‘신’, ‘귀신’과 비슷하다. 신(神)과 전(電)이라는 글자도 서로 통하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신격화(神格化)하여 하늘에서 파생되었다.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현상, 작용, 능력을 가리킨다. 대만에서 마조(媽祖) 등 신앙은 일반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칭한다. 비교해 보면 일본의 신은 자연을 넘는 신묘한 힘이 있는 것을 더 강조한다. 고대 일본의 신은 국민의 자연 신앙, 즉 애니미즘과 비슷한 개념이다. 제신(자연신, 땅의 신)은 각 지역의 귀족들이 만든 정치체계의 수호신이 되었고 부처(佛)은 외래의 신이 되었다. 부처는 번신(蕃神)이라고도 불린다.

## 3.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유래한 일본신화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고사기전(古事記傳)>에 대한 연구

일본 신화는 <고지키(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 또는 각지의 풍토기(風土記) 중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고천원(다카마가하라, 高天原)에서 제신(諸神)을 둘러싼 신화 체계인 것이다. ‘기기신화(記紀神話)’ 라고도 불린다. 그 중에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는 일왕 중심 지배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즉, 천황물어(天皇物語)의 일부라는 뜻이다. 따라서 책의 편찬은 그 당시 덴무 일왕(天武天皇), 지토 일왕(持統天皇) 정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성을 띠고 있는 역사서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는 한문(漢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경서를 참고하였고 음양론(陰陽論)으로 해석하였다. <고사기(古事記)>는 한자의 음훈을 교차해서 편찬하였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일본서기(日本書紀)>는 한문(漢文)으로 쓰여 있고 음양론(陰陽論)도

고대 일본의 사상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사기(古事記)>는 황국을 해석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또, 한심(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한자(漢字), 한적 중의 윤리, 정치 이론 등)과 한의(漢意)에서 오염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합(和), 한(漢), 일본, 일본인 등의 개념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쓴 <고사기전(古事記傳)>으로 인해 한층 더 깊이 해석이 되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이론에 대한 계승과 비판은 18~19 세기 일본에서 국학운동을 일으켰다. 일본 국학은 신화에 대한 분석, 유교와 중국에 대한 비판,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을 통해 본질적인 서술과 논의를 하였다.

#### 4. 일본 신화와 일왕의 밀접한 관련성

남 교수가 일본 신화는 주로 일왕중심 지배체계의 확립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왕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신화는 고천원산화(다카마가하라, 高天原神話), 히무카신화(日向神話), 이즈모신화(出雲神話) 세 가지 체계가 있다. 고천원신화와 히무카신화에서 나타난 신은 천진신(아마츠키카미, 天津神)이라고 불리고 이즈모신화에서 나타난 신은 국진신(쿠니쓰카미, 國津神)이라고 불린다. 일본 신화의 줄거리는 주로 천진신의 탄생과 국진신을 정복하는 과정이었다. 즉, 오늘 천황의 조상인 야마토 정권의 일본 열도를 정복한 과정의 상징이었다. 다음에는 신화 중에 일왕 조상의 이야기와 일본 신화의 특징을 청중에게 설명하였다.

##### (1) 일왕의 조상

신세칠대(카미노요나나오, 七代神) 중 하나인 이자나미(伊邪那美)와 이자나기(伊邪那岐)가 결혼하여 일본 8 개 섬을 낳았다. 그 후에 이자나미(伊邪那美)가 불의 신을 낳다가 불에 데어 죽게 되었다. 이자나기(伊邪那岐)가 아내를 보고 싶어 저승에 내려갔지만 아내의 몸이 부패한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 이자나기(伊邪那岐)가 황천 세상에서 본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물로 몸을 씻었다. 그 과정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쓰쿠요미노 미코토(月讀命), 타케하야 스사노오노 미코토(須佐之男命)를 낳았다. 그 후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타케하야 스사노오노 미코토(須佐之男命)는 물물교환의 과정에서 검과 옥으로 여자 신 세 명과 남자 신 다섯 명을 낳았다. 남자 신 다섯 명 중 아메노오시호미(天之忍穗耳命)는 천황의 직계 조상이다. 남 교수가 이런 천지개벽(開天闢地), 일본의 탄생 등 스토리는 천황정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 (2) 일본 신화의 특징

가. 다신교의 세계관이다.

나. 높게 정치화된 신화: ‘기기신화(記紀神話)’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가 손자를 인간에 내려 보내는 스토리와 지토 천황(持統天皇)이 손자(몬무 천황文武天皇)에게 물려주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일본 사상사학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일본 신화는 생성형(生成型)과 생산형(生産型)이 교차된 신화체계이었고 제작형(製作型)이 아니었다.

라. 일본의 창세신화(創世神話)와 민족의 역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는 메이지(明治)시대에 정부가 제정일치국가 사상을 언급하며 일왕의 제사와 신사 신도를 공식적인 제례로 하며 네 영역에서 모든 신앙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정일치의 국가체계가 완성되었다. 일왕의 제사는 제정일치국가의 초석이 되었고 학교 교육을 통해 왕실을 존경하는 교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제사는 최근에 만든 것으로 전통은 아니었다.

남 교수는 오늘의 강좌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전해 내려 온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 교육의 뒷모습은 모두 의식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 역사적 부호와 역사적 기억은 모두 조작될 수 있다. 회의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번역: 진방여(陳芳仔) 한국어문학과 예비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